

# 최상의 공양 하려면 최고로 청정한 생활 앞서야

조계종 어산장, 흥원사 회주 동주 스님



동주스님은 ... 1961년 서울 사자암에서 대은 강백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대교과 과정까지 배웠다. 이후 벽음·송암 스님에게 범패를 배웠으며 1969년 설립된 육천범음회에서 제1회 영산재 전과정을 이수했다. 1972년 직지사서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결계 때는 해인사 등 선원에서 정진하고 해제 때는 범패 수련 및 연구에 몰두했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 사자암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완료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계단위원, 성보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2006년 조계종 초대 어산장에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 흥원사 회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다.

50년 혹은 반세기. 긴 시간이다. 무량겁을 말하는 불교의 시간관에서 보면, 혹은 모든 존재의 공성(空性)을 가르치는 반야사상에서 보면 50년은 티끌 속의 티끌에 불과하겠지만. 사람의 일생에 있어 5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출가 50년. 그야말로 칠들기 바쁘게 절집에 들어 반세기를 지냈으니 한 생애를 고스란히 담은 시간이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올해로 출가하신지 50년 되십니다"로 운을 댔다.

"그게 뭐, 절집 축년 시간일 뿐이지요"

동주(東洲) 스님의 답은 간단했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고 누구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뭘 그리 따지느냐는 듯. 그러나 3시간 가량 스님이 풀어 놓은 지난 시간은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라지만 누구나 같은 길을 가지는 않는다. 스님의 길도 스님만의 길이였다.

"원래는 강사(講師)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죽고 싶었지요"

은사스님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동주 스님의 은사는 대은소하(大隱素荷:1894~1989) 스님.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손꼽히는 강사였다. 대은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공부하여 현대식으로 포교한 선각자였다. 유점사에서 일하 한 토막은 대은 스님의 기틀을 잘 보여준다.

경전공부를 하려고 유점사에 갔지만, 머무는 동안 양식을 댈 수가 없었다. 당시 유점사에서 머무는 스님들은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객(客)으로 사흘만 묵을 수 있었다. 흠뻑으로 달려간 대은 스님이 양식 댈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원주로부터 절을 나가달라는 통고를 받았다. 공부하러 왔는데 이 무슨 황당한 상황? 그렇게 아연(嗟然)해 있는 스님의 눈에 누룽지를 먹고 있는 개 한 마리가 보였다. 원주에게로 달려갔다. 급소를 찌르듯 물었다.

"개도 양식 댈니까?" "이 사람이, 개가 무슨 양식을 대?"

"그럼, 저는 저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급소를 찢린 원주는 말을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개의 주인인 노스님이 그 광경을 다 보았다.

"나이는 어려도 너의 말은 옳다. 내가 네 양식을 댈 테니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하여 대은 스님은 유점사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하루 경문 150줄을 외우는 초능력을 보였다. 전국의 강백들을 참방하며 문리를 터득했고 일본 유학도 손수 학비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마쳤다. 귀국하여 전국 강당과 포교당을 찾아다니며 쟁쟁 울리는 전법의 길을 열었다.

"중절 잘 하려면 의식은 제대로 배워야 한다."

은사스님의 이 한 마디에 동주 스님은 김포 문수사로 달려갔다. 영산작법에 능했던 벽음(碧應 1909~2000) 스님에게 서너 달 동안 지도 받으면서 일상 의식을 다 배웠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감이 들었다. 이왕 배우기 시작했으니 제대로 끝까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촌 불원사로 가서 송암(松岩 1915~2000) 스님에게 본격적으로

영산작법을 배웠다.

"큰 밥당 옆 노전 방을 얻어 혼자 밥 끓여 먹으면서 배웠어요. (송암)스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벽음 스님께 배웠지만 두 분의 소리가 다르니까, 나는 처음부터 다시 송암 스님 바탕으로 배워야 했지요.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찾아가서 배웠는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 재를 지내는 자리에 꼭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뭘니 뭘니 해도 작법을 배우는 것의 으뜸은 재를 지내는 현장이다. 방에서 사사받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어산(魚山, 영산재를 지내는 현장)에 나가 실제 재를 지내면서 내공을 쌓는 것을 능가할 공부는 없다. 경문을 외는 총기가 남달랐던 동주 스님은 한 대목 한 대목을 정성스럽게 배웠다. 그렇다고 강사가 되려는 생각을 접은 것은 아니었다. 배우던 것이나 다 배우고 싶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탐골승방(서울 보문사)에서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송암 스님께서 '너의 스님이 미쳤나 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스님'은 다른 아닌 대은 대강백. 당시 대은 스님은 탐골 승방에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경전강의를 했고 송암 스님은 의례를 가르치고 있었다. 대은 스님이 송암 스님을 찾아와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저 아이에게 스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다"고 청했던 것이다. 송암 스님의 입장에서 당대의 대강백에게 절을 받으니 황망했고, 아끼던 젊은 제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으니

## 송암 스님에게 범패 배워 조계종 첫 어산장 지정

기뻐다. 그래서 '미쳤나 보다'라며 즐거운 속내를 비쳤던 것이다.

"은사스님께서 그렇게 청을 하신 일인데 제가 배우지 않을 수 있나요? 송암 스님의 참회상좌가 되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영산작법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송암 스님은 홀소리 짓소리 안채비 바깥채비 등 모든 작법을 완벽하게 계승하신 분이십니다. 한 대목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어요. 가만 보면, 늘 어디에 계시든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외우십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범패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동주 스님도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반드시 완벽하게 배워야 다음 대목으로 넘어갔다. 오히려 송암 스님이 "이 대목은 다음에 다시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닙니다. 이거 마치고 넘어 가겠습니다"라며 뭇 때까지 연습을 연습을 거듭했던 것이다.

"그럼 강사가 되려는 생각은 그때 접으신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산이다 강사다 하는 것

자체를 놓아버리고 '지금'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불원사 노전에서 만난 지월(地月) 스님이 정신을 반씩 들게 해 주셨거든요."

늘 술에 취해 있던 지월 스님은 형편없는 평초로 여겨졌다.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 스님은 매일 밤 자정 무렵이면 곤하게 잠든 동주 스님을 깨웠다. 당시 동주 스님은 범패를 배우면서 재도 따라 다녀야 하고 임문자들에게 상주권공을 가르치기도 했으므로 늘 바쁘고 피곤했다. 그런 일상에서 자정 무렵의 깊은 잠을 깨우는 지월 스님이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꽤 오래 시달리다가 하루는 단단히 버리고 한바탕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문득 '저 스님이 그렇게 하는 데는 뭔가 까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고 조용하고 공손하게 여쭙었다.

"스님, 왜 밤마다 자는 저를 깨워서 '정신 차려라' '속지마라' 하고 호통을 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속지 않고 종노릇 잘 할 수 있습니까?"

"도를 모르면 속고 사는 것이다."

"도를 알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어느 날 밤삼이 되어서 금강산 보덕굴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다시 낙산사 흥련암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다. 흥련암에는 노인 한 분만 계셨는데 장좌불와 수행을 하셨다."

지월 스님은 노스님을 모시면서 관음기도를 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물었다.

"너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관음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누구데?"

지월 스님은 그만 콧 막혀 버렸다. 그래서 노스님이 시키는 대로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를 화두 삼아 기도했다. 100일 기도를 하고 흥련암을 떠나기까지 그 화두는 풀리지 않았다. 노스님에게 "다시 오겠습니다"하고 하직 인사를 하자 노스님은 "다시 올 것 없다. 네가 관세음보살인데 왜 다시 오느냐"고 했다. 거기서 힘을 얻은 지월 스님은 직지사 선원에서 재산 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그렇게 정진하다가 스스로 속지 않는 삶에 자신이 붙었던 것이다.

"지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참 환희심이 솟았어요. 범패공부를 빨리 마치고 선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송암 스님에게 범패 전 과정을 다 배우고 나니 강사생활을 하겠다던 시간이 지나버렸다.

"선방으로 갈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송암 스님께서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군요. 제가 배신을 해도 그런 배신이 없지요. 그러나 스님은 이내 '공부하러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여기 자주 올 생각 말고 공부에 매진하라'고 하시더군요."

여러 선방을 다니면서 정진하던 동주 스님은 해제 때 토굴에서 정진하다가 범패를 부르곤 했다. 범패의 전 과정을 제대로 배운 바에야 애써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다. 뒷 사람들에게 가르칠 의

###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010-3534-8366 (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 성지순례!!

1월 ~ 2월 마감이 끝났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조기에약 기념 특전
  - 5월 12일, 16일 (단 2회 출발)
  - 3월 15일 마감
  - 미안마 성지순례 1,490,000원
  - 양근, 바간, 만달레이, 해호 6일
- 3월 15일 출발
  - 지장도량, 관음도량 성지순례 1,290,000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3월 14일, 4월 5일 출발
  - 미안마성지순례 1,690,000원
  - 양근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미안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안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 3,000불 ~ 10,000불 ]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음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 정성이 없으면 불공은 '헛일'



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혼자 법패를 하면서 깨달았다. 법패야 말로 선정의 극치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배울 때는 배우는데 정신을 쏟아서 그런 맛을 몰랐지만 이제는 달랐다. 소리를 하는 도중에 잡념이 일면 소리가 흩어지고 갈라진다. 삼매에 들어가 제대로 된 윤희가 따

른다. 참선을 하면서 선정의 힘을 기르니 법패의 오묘한 맛을 알게 된 것이다.

“송문관의(誦文觀意)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경문을 외우면서 그 뜻을 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되려면 계행이 청정해야 하고, 법패의 법도를 알아 의식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수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패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보면 곤란하다. 아무나 음을 배우고 의례절차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고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청정계행과 수승한 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강경>에 ‘만약 모양으로 여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찾는다면(若以色见我 以音声求我)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게 되므로 능히 여래를 볼 수 없다(是人行邪道 不能見如来)’라 하지 않았는가? 드러나는 모양과 소리만으로는 불보살을 찬탄 공양하고 영가를 천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산에도 ‘유나’가 있었어요. 누가 소리를 법도에 맞게 내느냐를 보고 절자의 흐름이 잘못되는 것은 없는지 살피는 소임이었지요. 그만큼 재를 올릴 때는 정성을 바쳐야 하고 그 자체를 지고한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주 스님은 서울 사자암 주지를 맡아 16년 동안 중창불사를 진행하며 지질 대로 지쳤다. 앞도 뒤도 없는 행정절차 때문에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풀어야 했다. 간사는 못되었지만 선방에 더 다니면서 정진

## 법패 전문교습과정

### 개설해 후학에 전승 발원

력을 기르고 법패 후학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맞아 주질 않았다. 그런 와중에 계획했던 사자암 중창불사를 마쳤고 흥원사를 건립해 법패 수도원으로 삼았다.

“힘들고 지쳤을 때 대만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재공덕회의 원력과 불사를 보면서 다시 발심했어요. 대만 불교병원을 보니까 내가 좀 힘들다고 엄살 떨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후배들에게 법패를 전수하는 데 몰두하자며 돌아 왔습니다.”

오늘날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의 틀을 다진 송암 스님에게 ‘전부’를 배운 동주 스님은 조계종 어산학교의 기초를 닦았고 현재는 어산장(魚山丈)이다. 강원에는 강사, 선방에는 조실, 염불원에는 어산장이 최고 어른이다.

동주 스님은 특히 ‘수륙재’ 전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륙재의 전 과정을 아는 어산이 없기 때문에 그 맥을 이으려면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륙재는 물고기를 방생하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다. 온 법계의 유주무주 영가를 천도하고 생사를 초월한 공양과 공덕을 기리는 거대한 의식이다. 종단적 지원 등의 여건이 미흡하지만 동주 스님은 형편에 맞춰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최대한 정확하게 바르게 ‘법패의 전부’를 전하고자 오늘도 동분서주다.



임연태(사인 본지는설위원)

## 원형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4



### 진언종의 증흥조 카쿠반(覺鑊) ②

살아있을 때에 성불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성불할 수 있기를 발원하기도 한다. 카쿠반이 27세에 쓴 정토세계에 대한 발원문에 “삼세의 인행(因行) 아직도 익지 못하고, 만약 일생에 불교를 성취하지 못해도 임종시에는 또한 밀엄국토에 가고, 순차(順次)왕생이 결정되어 법성(法性)의 서늘에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화엄에서 불교를 얻고, 또한 월전(月殿)에서 무명을 타파하여 중생을 제도하며, 신·구·의 3평등에 살게 하여 수많은 중생을 인도하고,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성문·연각·보살의 9계의 성을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이 임종에 이르러서도 편안한 죽음을 이루고, 밀엄정토에 왕생해 사바의 번뇌를 벗어난 완전한 성불이 성취되기를

체성지(法界体性智)·대원경지(大円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의 5지를 개발, 성불을 위한 수행방편으로 활용하였다. 겐카쿠(賢覺)로부터 전수받은 비결의 결인과 더불어 허공장구문지법을 근래사에서 수행하는 중에 서있는 곳에서 우유가 솟아나고 500 불두가 땅에서 용출했다고 한다.

시대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한 카쿠반의 흔들리지 않는 보리심을 근래사의 부동명왕에 대한 일화가 잘 전하고 있다. 카쿠반이 고야산 밀엄원에서 폭도의 승려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같은 형상을 한 부동명왕 2구가 앉아 있었다. 이들 중 하나가 카쿠반이라고 생각한 폭도들이 양 부동명왕의 무릎에

### 살아서든 죽어서든 성불 발원했던 카쿠반 분열된 진언종 수행법 결집시킨 홍교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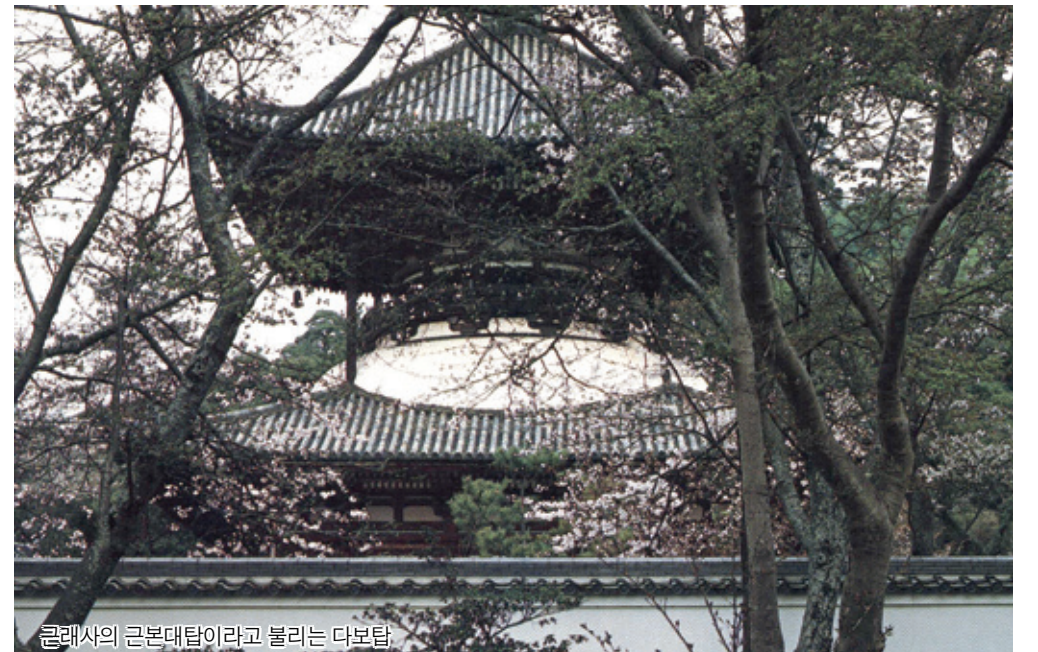
기원하고 있다. 실제로 카쿠반은 유언에서 제자들에게 임종시 고통에 시달리거든 추선공양으로 선근의 공덕을 쌓게 하여 아버지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부탁했다. 물론 그 최종 목적은 보현행원을 행하고 무상도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죽음이 앞서 모든 불계(佛界)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평생 수행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카쿠반은 즉신성불을 달성하기 위해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의 수행을 9차례 행한 결과,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승 쿠카이는 산림에서 허공장보살의 주문 100만 편을 50일간 수행했다. 카쿠반은 이것을 법계

화살촉을 송곳처럼 돌리며 찼다. 목상에서만 피가 흘렀고, 카쿠반은 부동명왕의 자비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삼매에서 나왔다. 카쿠반의 위력을 부동명왕이 지켜준 이 현상에 놀란 폭도들은 혼비백산했다. 이후 근래사로 옮겨진 이 부동명왕은 위엄을 대신 막아주는 부동명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카쿠반은 분열된 진언종의 사상(事相), 즉 수행법을 대성함으로써 진언종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었다. 근세에 이르러 이러한 뜻이 부활돼 진언종의 발전을 보게 됐다. 그 공덕으로 지금은 시호인 홍교 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근래사의 근본대탑이라고 불리는 다보탑.

## “일이 잘 안 풀리시죠?”

-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구요?”
- “평소엔 잘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구요?”
-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느냐구요?”
-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구요?”
-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구요?”



유남 탁대영 원장 / 장천 백구빈 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화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 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사찰 LED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5W, 10W
- ▶특: 필라멘트가 빛이 율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건전지용,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